

익산형 버스 운영체계 효율성 높여

15일부터 버스 지·간선제 본격 시행... 주요 거점 중심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익산시가 효율성을 높인 버스 운영 체계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합영과 금마, 여산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버스 지·간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효율성을 도모한 '익산형 버스 운영 체계'는 시내권에서 3곳 주요 거점까지 현재처럼 간선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주요 거점에서 읍면지역은 수요응답형 또는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전화로 예약 후



가까운 마을화관에서 요금 300원을 내고 탑승하면 합영, 금마, 여산 환승장까지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수요응답형 버스가 운영되는 지역은 용포면과 성당면 합라면 용안면 등 9개 지역이며 그 외 지역은 노선제로 운영된다.

시는 지·간선제 운영을 위해 전기 버스 14대를 확보했으며 충전시설과 거점 지역 환승장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요응답형과 기존 행복콜버스를 통합하는 콜센터를 구축했으며 환승 도우미를 배치해 버스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버스 운영체계 개편으로 시 재정 절감 효과는 물론 승객들의 평균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 등을 진행해 왔다. /익산=이재훈 기자



고군산군도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12개 부서가 모였다.

고군산군도 활성화 하나로 뭉치다

군산시, 12개 사업 추진 부서... 행정실무협의체 첫 가동

고군산군도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12개 부서가 모였다.

지난 2017년 고군산군도 연결 도로가 전 구간 개통된 지 5년이 경과하고 고군산군도가 연 200만여명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 잡으면서 지속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는 고군산군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12개 부서를 중심으로 행정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실무협의체는 부서 간의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한 추진과 향후 통일성 있는 개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 김봉곤 문화관광국장이 총괄단장을 맡았다.

사업팀으로 항만해양과, 수산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산림복지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등 8개 부서가 지원팀으로 기획예산과, 새만금에너지과, 위생행정과, 육도면 4개 부서가 참여해 향후 섬 개발 및 관광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민간 자문단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4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발도~명도~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조성(항만해양과), '선유도 망주봉 문화재구역 종합정비(문화예술과)',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운영(환경정책과)' 등 시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담당 실무계장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김봉곤 문화관광국장은 "고군산군도 행정실무협의체를 통해 각 부서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향후 고군산군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성장성과 기술력 갖춘 유망 강소기업 성장유도

군산시, 기업수요 맞춤형 종합지원

군산시가 기업수요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 강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며 산업부흥을 이끌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유망강소기업으로 5개사를 선정해 2020년 5개사, 2021년 2개사를 포함한 총 12개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유망 강소기업 지원은 3년동안 지원을 실시해 지난 2019년 10개사는 지원을 완료했다.

시는 유망 강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진단 및 종합컨설팅을 통한 성장로드맵을 구축하고 기업 패키지 맞춤형 지원과 유관기관 사업 기획 등 1:1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은 시제품제작 30건, 공정개선 22건, 마케팅제작 18건, 기술권리화 12건, 경영진단 및 컨설팅 11건, 시험분석 및 테스트 5건, 제품디자인 3건, 판로개척 3건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 유망 강소기업은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7), 기계(7), 화학(5), 조선(1), 의료(1), 제지(1)로 연매출 10억~100억미만(11), 100억~200억미만(6), 200억이상(5)으로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 2019년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주)풍림파이버는 이 사업의 지원을 통해 시제품 '주사기 고무전' 제작,

주사기 및 주사장치 특허출원 등의 성과를 냈으며, (주)태평양은 가드레일 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생산량 증가 및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등의 성과로 두 기업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코스텍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표창, 대원페이퍼는 전북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 강소기업에서 군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들 유망 강소기업은 2019년 대비 매출액은 53.1%, 고용인원은 36.6%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반드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2022 새만금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군산시는 8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미정 부시장과 민간 공동 위원장인 김민영 교수 등 16여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현안 사항 공유 및 대응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새만금 남북3축도로 건설, △새만금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나눴다.

'새만금 남북축도로'는 육상면 남북 교차로에서 부안군 행안면 공안 교차로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오는 2030년까지 1조 1,227억을 투자해 27.2km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새정부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새만금 내부 개발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도로로 본 사업에 대한 조기 시행 필요성을 새만금발

전협의회에서 공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또 협의회는 지난 10월 새만금위원회에서 확정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새만금 무너도 일원에 추진되는 친환경 레저체험단지 조성은 부족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도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민영 교수는 "오늘 회의는 새만금의 당면 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군산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이 하루 빨리 새만금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는 9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 조직으로 새만금과 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처음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여권 발급량 1월보다 8배 급증

익산시가 여권 민원 아간창구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이후 해외 여행자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권 발급량이 급증하자 여권 민원 아간 창구를 개설해 적극 대응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78권이던 여권 신청량이 지난 10월 한 달간 1,491권에 달해 발급량이 837%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말 누적 발급량이 1,847권에 불과한데 반해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발급량은 6,295건으로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시는 여권 민원업무를 매주 월요일 아간 시간까지 확대해 운영했다. 평일 낮 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1층 종합민원관에서 저녁 8시까지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NS를 활용해 기존 여권 발급자들에게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적극 홍보에 나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3매, 신분증 수수료를 지참하여 여권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만약 기존에 발급 받은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기존 여권도 지참하여야 한다.

시는 여권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수령까지 5일이 소요됐지만 발급량 급증에 따라 수령일도 다소 늦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중진 일반여권(녹색여권)의 경우, 하루에 발급량이 정해져 있어 차세대 일반여권보다 수령하는 날이 더 늦어진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어려운 경제 여건 감안해 의정비 동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 의정 활동비를 동결키로 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여파 등 어려운 경제 여건 고려해 2023년 의원 의정 활동비를 동결키로 하고, 월정수당에 대하여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 내년도 의정비는 4,003만 원으로 확정됐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지역 인구감소 및 급격한 물가인상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동결하기로 시의원들과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산시의회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합영지역 주민 참여 도시재생 '활발'

익산시 합영 주민들이 지역 유휴공간과 버려진 제품들을 '업사이클링' 하며 도시재생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익산시 합영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자연순환 업사이클링 기획展 : 제1회 업사이클링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합영지역에서 공방을 운영 중인 지역민이 지역에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전시회다.

특히 오랫동안 비어있던 (구)합영농협을 합영도시재생지원센터이자 전시회장으로 이용해 도시재생 유휴공간을 지역 문화 사랑방 활용으로 업사이클링 전시회의 가치를 높였다.

전시회는 무료 관람이며 전시회 기간 중 방문객 수를 고려하여 '업사이클링 원데이 체험 클래스'도 즉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